

01 교회소식

부활주일 감사예배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사신 주님의 은혜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린다.

02 생명의 말씀_ 선 시리즈 8

나아만의 선(善)

나아만 장군은 겸손한 마음으로 복된 소식을 받아들여 믿음의 행함을 나타냈으며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변함없는 충심이였다.

03 기획특집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신 데에는 놀라운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다.

04 간증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 '십자가의 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대표적 설교 '십자가의 도'는 책자와 방송, 여러 집회 등을 통해 무수한 영혼을 깨우고 있다.

만민뉴스

제575호 2013년 3월 3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는 부활주일

감사예배와 성찬식 열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중생, 성결, 신유, 부활, 재림 중에서도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을 단적으로 증거한다. 부활이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완전한 생명으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한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제자들은 마지막 때 자신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복음전파를 위해 기꺼이 순교에 이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확고한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3월 31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아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대예배 시 '부활'(행 1:11)이라는 제목으로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이 열렸고, 이 길은 죄 사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뤄지는 것임"을 설교한다.

또 저녁예배 시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6:53-55)라는 제목으로 "인자의 살과 피 곧 말씀을 양식삼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의 모습을 회복해 가야 할 것"을 증거한다. 설교 후에는 성찬식이 본당과 2, 3, 4, 5, 6성전 및 지성전과 국내외 지교회에서도 진행된다. 학습식과 세례식은 지난 17일과 24일에 있었다.

여선교회 총연합회에서는 부활절을 기념해 성도들과 교회 주변 관공서, 학교, 벤처타운에 부활절 계란을 나누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사랑을 전했다.

그동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 기도와 금식으로 부활절을 준비해 온 성도들은 이날을 기점으로 더욱 신속한 믿음 성장을 이룰 것이다.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되새기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 바란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흘린 눈물과 피를 기억하며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목자를 생각하며

아무것도 아닌 악과 세상에 지지 말고
 아버지의 부르심에 따라 영광중에 산 이들을 기억하며

◆ 내 피의 값을 헛되게 하지 않기를
 ◆ 난 항상 너희들의 가까이에 있으며
 ◆ 너희들을 지켜보이니

내 눈을 가리지 말며 내 마음을 덮지 말고
 모두가 부활에 동참하기를 난 늘 기도함이니

이 간절한 나의 마음을
 너희의 목자를 통해 늘 체험하기를
 너희들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늘 느껴나가기를
 나는 원하노라



당회장 이재록 목사

나아만의 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니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더라”
(누가복음 4:27)

로 잡아온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계집종이 주모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러이다”라고 말하지요.

결국 이 말이 나아만 귀에도 들리게 됐고 나아만은 계집종의 말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왕 다음가는 권세를 지닌 지체 높은 신분이지만 하찮은 종의 말도 흘려듣지 않을 만큼 마음이 겸손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말은 선한 소식이며 복된 소식이었지요. 이처럼 복되고 선한 소식을 들을 때에 전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선하다’고 인정하십니다. 만일 나아만의 마음이 강팍했다면 “네가 무엇을 안다고 참견이냐!” 하며 계집종의 말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응답해 주십니다.”라고 전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선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말을 듣고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더욱이 지위가 높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떻게든 세상에 의지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전도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음의 증거를 행함으로 온전히 나타내는 마음

나아만은 계집종이 알려 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종들을 시켜 “모셔 오라.” 하거나 서신을 띄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선지자를 찾아 나섰지요.

또한 열왕기하 5:5에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치료받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처럼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심지 않고 거두길 바라거나 심은 것이 상을 바라는 요행이 아니라 정녕 응답받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해 갔지요.

이처럼 나아만은 병든 몸을 이끌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직접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도 보이지 않은 채, 다만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 물에 일곱 번 몸을 씻으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기분이 상해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며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지요.

단지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하니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은 자기적인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우습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어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나아만의 종들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말하지요(왕하 5:13). 종들이 나아만에게 아버지라 부르며 권면의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평소 그가 얼마나 선하고 겸비한 사람이었는지를 알려 줍니다.

나아만은 종들의 말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들을 줄 알았으며 옳고 좋은 건의라면 받아들이는 넓고 큰마음을 지녔습니다. 그러했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종들이 나아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었지요. 결국 나아만은 마음을 돌이켜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었습니다.

영적으로 ‘일곱’은 ‘완전함’을 뜻하는 완전수이며 요단강의 ‘물’은 ‘하나님 말씀’을 뜻하므로 ‘일곱 번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아만은 세 번, 네 번 씻어도 낫지 않자 중도에 포기해 버리고 만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일곱 번을 씻었고 그 결과 문둥병을 치료받는 하나님 역사를 보았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되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행하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즉시로 문둥병을 고쳐 주셨습니다(왕하 5:14). 즉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여기며 선하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대하 20:20).

3. 받은바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갚을 줄 아는 변함없는 중심

누가복음 17:17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 사람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단 한 사람만 와서 사례하자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질병을 치료받기 원하거나,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으려 할 때는 “치료받으면 생명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지만 막상 치료받은 후에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받은바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지요. 열왕기하 5:15에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했습니다.

치료받은 후에 그냥 자신의 나라로 떠나 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 온 사람들을 모두 거느리고 다시 엘리사 앞에 나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즉시 하나님만 인정하고 섬기겠다는 다짐을 했지요(왕하 5:17).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한 번 만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선한 중심을 지녔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아만을 택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이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임했느냐에 따라 축복의 크기와 응답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선한 마음을 갖되 행함으로 온전케 이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과 인접한 나라 곧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왕하 5:1). 불치병이기에 아무리 좋은 약과 최고 의술, 자신이 섬기는 신을 의존해 보아도 치료를 받지 못했지요.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 하나님 권능으로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무리 큰 권능을 행하는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해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마음이 선해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이라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27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니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더라” 말씀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행함을 보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나아만 장군의 선은 무엇일까요?

1. 복되고 선한 소식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나아만 장군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말·공휴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대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성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매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축복 중,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의 영적 의미를 살펴봄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바란다.



◆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령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풍요로운 에덴동산을 창설해 이끌어 들이신 후,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에덴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을 뿐 아니라 지구에 속한 모든 것도 능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셨다.

창세기 1:28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첫 번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다.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께서 배필로 주신 하와와 함께 에덴동산에서 많은 자녀를 낳으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다.

두 번째 복은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에덴동산과 지구를 기업으로 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세 번째 복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동물과 교감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 곧 에덴동산과 지구를 정복하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에덴동산이 속해 있는 둘째 하늘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머무는 공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빛의 영역에 속한 에덴동산과 이 어둠의 영역은 맞닿아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경작을 위해 옛세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신 후, 무저갱에 가두셨던 루시퍼를 비롯해 악한 영들의 일부를 풀어 주셨다. 그리고 둘째 날, 이들이 에덴동산 동편에 거할 수 있도록

복 처소를 마련해 주셨다.

천지창조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만물의 영장으로서 악한 영들로부터 에덴동산과 지구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이다.

◆ 영적인 땅, 마음을 진리로 정복하라

창세기 2:16~17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경고하셨는데 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첫 사람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삯인 사망이 임하고 말았다. 결국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수고해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누구라도 자신의 마음을 정복해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영적으로 ‘땅’은 흙으로 지음 받은 사람의 마음 발을 의미한다. 마음 발을 개간해 옥토가 된 만큼 영적인 땅을 정복한 것과 같다.

옥토로 일구지 못한 마음이 있는 만큼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 마음에 육의 속성이 남아 있는 한 온전히 마음을 정복했다고 할 수 없다. 육의 속성이 조금만 있어도 마음이 변질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정복하면 죄악 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정복하지 않으면 세상 유혹과 미혹,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마음이 빼앗겨 오히려 세상 것에 정복당하고 만다.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내 마음을 얼마큼 정복했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 발에 있는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를 찾아내어 뿌리째 뽑아버려야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 마음에 사랑을 온전히 채워 다스리라

우리가 마음을 정복한 후에는 무엇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려야 할까? 예컨대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그것을 뽑아버리는 것이 정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을 마음에 채워 나가면 지배하는 것이고, 온전히 채우면 사랑으로 다스리는 차원이 된다. 이 차원에 들어가면 육신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맑은 음성을 듣고 주관받게 된다.

빌립보서 2:13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심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고 주관하셔서 험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

누구든지 마음을 정복하면 일단 비진리를 모두 벗어 버렸기 때문에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더 나아가 덕과 사랑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며 주변 사람들로 부터 칭송을 받게 된다.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다스리는 차원에 이르러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누리기 바란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수요프로그램 안내

4 April

2013.3.31~4.6

www.gcntv.org

이제부터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 6-9
- 치료와 응답의 공의 1-2
- 성경적 결혼관 1-2
- 2차영혼육 13-15/3차영혼육 1-2
- 창세기 강해 49-53
- 천국 13-17

GCN TV '철교'

- 육과 영 8-12 (이수진 목사)
- 근본의 약 1-2 (이희선 목사)
-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김지애 지매)
- 'GCN TV특강'
- 십자가의 도 8-12 (정구영 목사)

찬양 프로그램

- GCN 파워프레이즈 1-3, 5, 18
- 찬양과 경배 (3) 49-53, 57-58

해외성회 시리즈

- 뉴욕연합대성회 3
- 뉴욕연합대성회 종합편

간증 프로그램

- 크리스천 투데이 42-46
- GCN 간증 스페셜 5-7

부활절 공연

- 2013부활절 공연 '주는 그리스도'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A/S 문의

1577-2073

전 세계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메시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공의를 알려 주는 이재록 목사의 설교 '십자가의 도'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세주이신가'를 비롯해 인간 구원의 섭리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전 1:18, 2:6~10).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만 올바로 알아도 참 자녀를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또한 만세 전에 감추어진 비밀 곧 십자가의 섭리를 통해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 안에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살아 있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170여 개국으로 송출되는 GCN 방송(www.gcnetv.org)은 물론, 인터넷 웹사이트(www.manmin.org), MIS(만민국제신학교), MMTC(만민세계선교훈련원), 세미나, 권능의 손수건 집회



(행 19:11~12), 책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 세계 영혼을 깨우며 축복과 응답받는 신앙생활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십자가의 도'는 국내 우림출판사를 비롯해 해외 11개 출판사에서 영어, 중국어, 불어, 스

페인어, 일어 등 총 40개 언어로 출판, 유통되고 있다. 이 외에도 편잡어, 아르메니아어 등 27개 언어로 번역 및 감수 중이다.

전자책으로도 발간돼 세계 최대 인터넷서점 아마존닷컴, iBookstore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미국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를 증거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님 품으로 인도한 세계적인 부흥강사 이재록 목사



“복음의 핵심을 깨우쳐 사역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세르위 제코비 목사 (벨기에 추크레이 미션센터 대표)

2010년 5월, 저는 벨기에 에노 만민교회 담임 노현숙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재록 목사님 저서 『십자가의 도』를 건네받아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 섭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지요.

매우 깊이 있는 영적 메시지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의 마음과 생각, 믿음이 달라졌지요. 뿐만 아니라 영혼들이 변화되는 체험을 하면서 사역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우친 저는 주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임을 깨달으며 회개했습니다. 그 후 2011년 3월, 브뤼셀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시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감사 이희선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시력이 좋아져 안경 없이도 작은 글씨까지 보게 됐지요. 십자가 섭리에 담긴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신 이재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신디아 맥밀란 성도 (호주 시드니)

저는 과학교사입니다. 2008년, 친구에게 이재록 목사님 저서 『십자가의 도』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이 상세히 적혀 있어서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지요.

특히, 모든 짐승과 새와 물고기까지도 사람과 같이 눈 두 개, 입 하나, 코 하나에 콧구멍 두 개, 위치도 동일하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 학생들에게 우주, 태양계 등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주가 되심을 이전보다 더 쉽게, 확신을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었지요. 이제는 학생들이 먼저 제게 하나님에 관해 말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도' 메시지가 사람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듣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5202-5547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 운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리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례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도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7487-171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경기도 분당구 아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증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